

News

사라진 2% 대출…가산금리 낮춰도 무용지물

서울경제

시중은행,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대출금리 인하 경쟁 벌이나 금리 하단 평균 3%대로 치솟아… 국채금리 상승에 조달 금리 급격하게 오르며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은 모습 반면 4~5% 금리 대출 비중은 급격히 몸집 불리는 중… 금리 상승기 대출 축소에 가산금리 낮추며 고객 유치에 나서… 신한은행,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최대 0.1~0.25%p 인하

신한은행, 법인 대상 가상자산 거래용 원화 계좌 발급

Zdnet Korea

신한은행, 법인 대상 가상자산 거래용 원화 계좌 발급… 작년 9월 가상자산 관련 규정 담은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 국내 은행이 계좌 발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법인은 그간 우회적 투자만 가능한 상황… 신한은행, 코빗에 일부 법인용 원화계좌 발급…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도 법인 계좌 발급 검토하는 분위기

인터넷은행 중저신용 대출 늘린다

뉴시스

인터넷은행, 중·저신용 대출 대상 확대… 신용평가사들이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기준 상향하면서 인터넷은행들의 중·저신용 대출 비중 증가 효과… 올해 목표치 달성을 청신호 KCB와 나이스 등 CBA들 중저신용자 기준 상향… 은행 및 핀테크 업체의 신용점수 관리 서비스 확대 영향도 있을 것… 당국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50%로 현재 두는 상황

“온투업계, 3개월간 누적 취급액 8760억원 증가… 등록 업체는 7개 늘어”

조선비즈

온투업계, 작년 12월 말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총 누적 취급액 약 8,760억원, 총 대출 잔액 약 1,542억원 증가… 작년 12월 말 35개사인 온투업 등록 업체가 42개사로 늘어난 영향 3개월 사이 누적 취급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3개 온투업사는 나인티데이즈,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대출 잔액 상승액 기준으로 피플펀드, 8퍼센트, 오아시스펀드

암보험 등 보험료 5~10% 내려간다

뉴시스

대형 손보사들, 예정이율을 기준보다 2.25%에서 0.25%p 올려 2.5%로 조정…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대형손보사들이 예정이율 상승 주도 중 반면 생보사들은 예정이율 조정에 소극적인 태도 보여… 내년부터 IFRS17와 K-ICS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 손보업계는 금리 상승기에 올려도 괜찮겠다는 분위기

연금저축보험 수익률 올라도 '부진'…선진국형 상품 도입될까

아이뉴스24

작년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평균 수익률 1.77%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 은행의 연금신탁 0.22%보다 높지만 증권사 연금펀드 9.16%보다는 저조 KB생명이 2.8%로 가장 높은 수익률… 다만 가입자 수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 신규 계약건수 작년 470만 5,000건으로 16년에 497만 건에 비해 감소

“리스크 대비가 곧 IB 경쟁력”…역대급 준비금 쌓은 증권가

아시아투데이

작년 말 기준 59개 증권사가 적립한 대손준비금은 9,459억 980만원으로 집계… 전년동기 대비 14.8%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 메리츠증권이 작년에만 1,613억원의 대손준비금 쌓으며 최대 규모 기록… 적극적인 IB사업을 위한 목적… 올해 회사채 미매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도 존재

“주식 못 믿겠어”…증권사·증권사 ELS로 갈아타는 개미들

중앙일보

올 들어 10% 넘게 하락한 코스피가 박스권에 머물자 투자자들이 ELS로 눈길 돌려… 미국 테크 기업 주식 기초 자산으로 ELS 상품 출시 이어져… 다만 증권사 및 증권사 상품이라 원금 손실 볼 수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 만기까지 투자해야 할 수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